



CHINA PACK을 다녀와서

김영순 / 한국포장기계협회 상근부회장

중국은 1978년부터 개방이 추진된 이래 20여년간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북경, 상해를 비롯한 동부 연안지역이 놀라울 정도로 풍요로워지고 있으며 새천년에 들어와서 그 성장속도는 너무나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포장기계 및 식품기계 산업은 연간 20~3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뒤떨어진 포장방법과 미흡한 보관방법으로 인하여 많은 제품들이 손실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정부 당국은 이 포장분야의 기계화, 자동화 및 현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슈퍼마켓의 등장과 함께 급격한 소비패턴의 변화를 겪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소매업이 성장함에 따라 보다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포장방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0년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상하이에서 개최된 'CHINA PACKTECH & FOODTECH 2000'에 한국포장기계협회가 주최가 되어 한국관을 구성하여, 동 전시회에 참가함으로써 한국의 포장기자재 산업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업체 제품의 기술과 노하우를 중국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

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전시회 규모는 총 전시면적10,000㎡, 참가규모는 15개국 154개업체이며 관람객 약 10,000명(추정)으로 전통적인 중국의 전문전시회 규모로 판단된다.

15개국중 중국을 제외한 외국사로는 한국을 비롯 프랑스, 독일, 홍콩, 싱가포르, 덴마크, 러시아, 일본, 미국, 이태리, 아르헨티나, 영국, 핀란드, 대만 등이었으며 국가관 참가로는 한국과 프랑스 두 나라뿐이었으며 한국이 10개사 14부스, 126㎡로 제일 큰 국가관을 형성하여 국위를 선양하였으며 프랑스는 90㎡로 한국보다는 적은 규모였다.

그 외 다른 외국사로는 이태리 4개사, 덴마크 2개사, 홍콩 3개사 등이었으며 대부분 국가들은 1개사 정도가 참가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포장기계협회가 주관한 한국관에 (주)화성기계, (주)산호기계, 한얼기계, 삼영화학(주), (주)대현하이테크, 대일공업, (주)세종기계, (주)D.S.I, (주)한백자동기 및 협회 홍보관 등으로 꾸며졌으며 협회 홍보관에는 을성정공을 비롯한 9개회사가 카탈로그를



▲ China pack 한국포장기계협회관(신현재 회장(오른쪽)과 김영순 부회장)

전시하여 제품홍보에 힘을 썼다.

이번 전시회 참가 성과로는 총 상담건수 325건으로 상담액 3,668,100달러로 그 중 계약액이 21,000달러의 유형적인 성과를 올렸으며 대리점 계약체결 1건의 큰 성과를 거뒀다.

무형적인 효과로서는 중국내의 전시회로서는 한국관 형성은 처음인 관계로 국가이미지의 홍보 및 한국포장기계 산업의 위상을 정립하였다고 생각한다.

이상과 같은 유무형의 큰 성과는 우리 협회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5개지역 중 중국지역에 대한 꾸준한 마케팅전략의 일환으로 이는 98년 중국 광주우전시회를 시작으로 지난해 상하이전

시회(8개사 9부스 81㎡) 참가에 이어 3번째 참가행사로 꾸준한 관심과 홍보에 따른 결과로 추정되며 이번 전시회에는 COEX와 더불어 약 50명의 참관인원의 행사도 겸해 실시했다.

앞으로 계속 본협회 해외시장 지역별위원회를 가동하여 수출사업에 전력할 예정이다.

끝으로 이번 전시회를 주관한 프랑스 EXPOSITION사의 폭넓은 전시회 홍보전략과 중국 현지주관사인 중국식품포장기계공업협회와 중국포장식품기계총공사의 한국관 설치에 대한 칭찬에 감사드리며 우리 협회는 2001년에도 중국 포장기계전시회에 한국관을 준비할 것을 천언하며 참가회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